

원기90년도 전반기
원불교 마음공부 세미나

원불교 마음공부 방법론 연구

일 시 : 원기 90년 4월 12일(화) 오후 2시

장 소 :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

주 최 : 원불교 교화연구소

원 불 교

원기90년도 전반기
원불교 마음공부 세미나

원불교 마음공부 방법으로 연구

▷ 연구발표 내용 ◁

▶ 원불교 '마음공부' 정의(定義)의 한 시도

발표: 한창민/교무 원광대 교학대학

토론: 박광수/교무 원광대 교학대학 최희공/교도 수위단원

▶ 원불교 마음공부 방법론

발표: 김인소/교무 원광대 도덕교육원

토론: 권도갑/교무 도봉교당 이상선/교무 영산선학대학교

▶ 정전을 통한 마음공부 방법에 대한 연구

발표: 백광문/교무 영산선학대학교

토론: 박덕희/교무 원불교대학원대학교 류백철/교도 국방과학연구소

일 시 : 원기 90년 4월 12일(화) 오후 2시

장 소 :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

주 최 : 원불교 교화연구소

원 불 교

원기90년도 전반기
원불교 마음공부 세미나

원불교 마음공부 방법론 연구

사회: 차윤재/교무·교화연구소

1. 개회
2. 입장
3. 심고
4. 격려사
5. 발표 및 질의토론
 - ▶ 원불교 '마음공부' 정의(定義)의 한 시도
발표: 한창민/교무 원광대 교학대학
토론: 박광수/교무 원광대 교학대학 최희공/교도 수위단원
 - ▶ 원불교 마음공부 방법론
발표: 김인소/교무 원광대 도덕교육원
토론: 권도갑/교무 도봉교당 이상선/교무 영산선학대학교
 - ▶ 정전을 통한 마음공부 방법에 대한 연구
발표: 백광문/교무 영산선학대학교
토론: 박덕희/교무 원불교대학원대학교 류백철/교도 국방과학연구소
6. 질의 및 종합토론
8. 폐식

원불교 ‘마음공부’ 정의(定義)의 한 시도*

한 창 민 교무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I. 이끄는 말

원불교에서는 1977년부터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다. 원불교 수계농원에서 촉발된 이 마음공부는 대내·외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제법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반 교도들을 비롯하여 청소년과 유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정을 비롯하여 삶의 현장이나 교육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이 시도되어 왔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도덕성 회복 및 발달에 기여한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²⁾

그러나 그 직접적인 성과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마음공부’의 이념 정립 및 ‘개념화’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마음공부 개념화(conceptualization)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질 않자 원불교중앙총부의 원불교교화연구소에서는 2004년 10월 15일 원불교중앙총부에서 ‘마음공부의 정체성(개념) 연구’라는 제목으로 원불교 마음공부 세미나를 시도하였다. 최희공, 권도갑, 김성훈이 발표자로 나서 마음공부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불교 ‘마음공부’라는 핵심 개념의 개념 정의가 명료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개념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화’(개념 정의)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원불교 ‘마음공부’에 대한 하나의 개념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원불교 ‘마음공부’의 이해 및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기여할 수 있고, 또한 향후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II. ‘개념화(定義)’란?

일상 대화에서도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상호 공통된 이해가 없으면 대화의 지속이 불가능하다. 대화자 쌍방이 같은 용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면 의사소통은 불가능하고 대화는 계속 걸돌게 되어 있다. 대화가 걸돌게 되면 이를 감

* 본 연구는 2003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2) 김도공, 「마음공부 방법론에 대한 모색: 교단 내 마음공부 현상과 원리 비판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사상 24집, pp. 365-389.

지한 사람은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상호 대조를 시도하게 된다. 그래서, 중심(핵심) 개념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조정한 후에야 비로소 상호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학술적인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핵심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논의를 하게 되면 다른 연구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은 중심 개념들을 명료하게 정의하고 넘어간다. ‘이 연구 논문에서 핵심 개념은 XX인데, 이 개념을 필자는 이러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핵심 개념의 명확한 의미를 한정시켜 주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학술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념 정의의 의의와 방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개념 정의가 의도하는 본래 목적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핵심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개념 정의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이다. 각자는 자신들의 연구 목적에 맞게 핵심 개념의 의미를 정의한다. 연구 목적이 달라지면, 개념 정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추상성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는 요구되는 개념의 추상성 정도가 다르다. 즉, 경험적 연구는 경험적 지표들에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의의 추상성 정도를 비교적 낮게 조정한다. 이처럼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목적에 따라 개념을 규정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린 개념 정의를 아무런 비판적 고찰 없이 나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신의 논문에서 자신의 연구 목적을 위해 규정한 개념 정의를 스스로 무시하는 경우이다. 한 논문에서 핵심 개념은 자신이 해당 논문에서 규정한 정의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개념의 정의와 그 사용이 별개로 노는 경우가 많다. 무엇 때문에 장황하게 정의를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도록 자신의 논문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문제는 정의가 개념의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이다. 즉, 정의가 너무 어려워 차라리 정의내리지 않음만 못한 경우도 있다. 개념 정의는 매우 평이한 원초적 언어(primitive terms)들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난해하고 추상적인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개념의 의미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철학적 사고들을 도입하여 현재 원불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마음공부’ 개념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념 정의’의 기본 요소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개념화 관련 소개는 코헨(Cohen)을 중심으로 시작해 보기로 한다.³⁾

‘개념화(개념정의)’의 의미: 개념 정의는 자신의 논의에서 핵심 개념의 함축된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 쓰는 것을 말한다.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해줌으로써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래서 개념 정의는 원초적 언어

3) Cohen, Bernard P., *Developing Sociological Knowledge: Theory and Method*, Second Edition, Chicago: Nelson-Hall, 1989.

(primitive terms)를 이용하여 개념의 의미를 기술한다. 원초적 언어란 더 이상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매우 평이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말한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의들은 정의에 사용한 용어들을 추가적으로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마음 공부를 “마음 작용이 진리에 부합되게 일어나게 하는 공부요, 천만 경계 중에서 모든 재주와 모든 환경과 모든 물질을 오직 자리이타로 선용하여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마음 공부요.....”⁴⁾라고 정의하였다 하자. 이 정의는 대부분 원초적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 “마음 작용,” “공부,” “경계,” “자리이타,” “참 문명 세계” 등이 그것들이다.

마음 공부 정의의 또 다른 시도로 “마음 공부란 법신불 사운을 신앙하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를 통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얻어 생활 속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수용하는 것을 말함”⁵⁾라고 하였다 하자. 이 정의에도 “법신불 사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광대무량한 낙원”과 같은 부가적 설명이 필요한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권도갑 교무는 같은 발표에서 마음공부를 “경계를 대할 때마다 상대의 밝음을 대조(회광반조)해서 나의 밝음을 드러내고, 어두움을 통해서 나의 어두움을 수용함으로써 천만 경계에 부동하는 자성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정의도 역시 “경계”라든가 “밝음,” “어두움,” “회광반조,” “자성” 등과 같은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개념 정의는 원초적 언어들을 이용하여 개념의 의미를 명료하게 서술하는 것인데, 정의에 사용된 용어들이 때론 부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개념 정의를 다르게 표현하면, 추상성 정도가 높은 개념을 추상성 정도가 비교적 낮은 용어(원초적 용어 같은)로 풀어쓰는 것을 말한다. 추상성은 구체성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구체적인 사물들로부터 공통된 특성들을 뽑아내어 추상적인 개념들을 만들어낸다. 추상적 개념들은 개념의 포괄범위가 넓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함축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추상적 개념들을 사용할 때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해주기 위해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소개한 마음 공부 정의들은 정의 자체가 매우 높은 추상성 정도를 지니고 있어 개념의 이해에 다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음공부를 ‘자성을 세우는 공부’라고 하였을 때 정의(자성을 세우는 공부)가 개념(마음공부)만큼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정의라 보기 어려운 것이다.

정의의 목적과 평가 기준: 간혹 다른 사람들의 개념 정의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로 평가하는 것을 들곤 한다. 그러나, 정의는 옳고 그름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소나무를 “식물의 한 종류,” “나무의 한 종류”라고 정의를 내렸든, 혹은 “침엽수의 한 종으

4) 최희공, 「원불교 마음 공부의 정론」, 원기 89년도 원불교 마음공부 세미나, 《마음공부 정체성(개념) 연구》, 2004, pp. 1-12.

5) 권도갑, 「원불교 마음공부 개념을 중심으로 한 자성을 세우는 마음공부」, 원기 89년도 원불교 마음공부 세미나, 《마음공부 정체성(개념) 연구》, 2004, pp. 13-20.

로 온대지역으로부터 한대 지역까지 널리 분포하는 상록수로서 목재로 많이 사용되는 나무의 한 종류”라고 정의를 내렸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내릴 수는 없다. 다만, 어느 것이 더 유용하고 의사소통을 위해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는지에 따라 더 바람직한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나의 연구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개념의 의미가 규정되었느냐가 개념의 질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개념 정의의 목적은 “의사 소통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한 기준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확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위의 소나무 정의에서 “식물의 한 종류”라고 내린 정의는 개념의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소나무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정의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침엽수의 한 종으로...”라는 정의는 다소 더 도움이 되는 정의일 것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개념의 함의를 풀어쓰는 것이 바람직한 정의일 것이다.

둘째, 유용성(fertility)을 가져야 한다. 관심 분야에서 이 정의를 유용하게 생각하고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내린 정의이어야 한다. 의미가 구체적이면서 개념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관련 연구에 그 유용성이 확인된다면 지속적인 반복 사용을 가져올 것이다. 원불교에서는 은(恩)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존재간 공리(功利)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후속 연구들은 거의 무비판적으로 이 정의를 수용하고 있다. 많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만큼 이 개념 정의가 유용했기 때문이다.⁶⁾

셋째, 구체성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 경험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어야 한다. 마음공부란 개념을 정의하였을 때, 그 정의에 따라 마음공부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따르면 마음공부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공부를 지나치게 추상적인 현상들과 연결시키게 되면 경험적 지표들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정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마음공부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이라면 일상적인 경험적 지표들을 가지고 정의를 내려야 유용한 개념이 될 것이다.

넷째, 연구 목적에 적합한 정의가 필요하다. 개념은 사물의 어떤 측면을 포착·추상한 것이다. 하나의 사물을 수많은 각도에서 조명하고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는 연구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앞의 소나무 정의에서, 식물의 생태에 주로 관심을 가진 연구는 소나무의 생태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의를 내려야 하고, 나무의 경제적 이용가치에 주로 관심을 가진 연구는 소나무의 용도를 포함하는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의는 부적합하다 하겠다.

6) 그러나, 은(恩)을 공리(功利)적으로 한정시키다 보니, ‘은’의 ‘존재론적 함의가 훼손되고 있다. 향후의 논의들은 ‘은’의 존재론적인 포괄적 정의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정의의 종류: 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의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명목적(nominal) 정의, 외연적인 정의(denotative), 그리고 함축적(connotative) 정의가 그것들이다. 첫째, 명목적 정의란 그 개념의 의미를 명목적인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삶의 만족도”(개념: LS)는 ‘가지고 싶은 것(C)에 반비례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A)에 비례하는 주관적 심리상태’라고 했을 때 수식으로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S = \frac{A}{C}$$

원불교식으로 이 수식을 설명하면, 마음의 평화(LS)는 네가 가진 것(A)에 비례하고, 네 욕심(C)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LS)를 얻기 위해서는 많이 가지려 노력(A)하기보다는 네 욕심(C)을 작게 해야 한다. 즉, 안분(작은 C)해야 한다. “네가 100(A)을 가지고 있을 때 200(C)을 욕심내면 네 마음의 평화(LS)는 0.5밖에 안 되지만, 네 욕심을 50(C)에 두면 네 마음의 평화(LS)는 2.0이 되고, 네 욕심을 10(C)에 두면 네 마음의 평화(LS)는 10.0이 된다. 욕심(C)을 작게 할수록, 분수(C)에 안분할수록 네 마음의 평화(LS)는 커지는 것이다. 그대들이여 행복하려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욕심(C)을 조출(작게)하게 하라.” LS에 대한 이러한 장황한 설명을 위와 같은 간단한 수학 공식이나 기호로 표현할 때 이것을 명목적 정의라고 한다.

둘째, 외연적 정의는 “예(examples)”를 가지고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마음공부를 정의할 때, “마음공부란 ‘마음을 세우는 것,’ ‘마음을 돌리는 것,’ ‘마음을 크게 하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 등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다양한 예들을 관통하는 종합적·포괄적인 그 무엇이 마음공부라는 의미이다. 다른 예를 든다면, ‘침엽수’를 정의할 때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과 같은 나무’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를 외연적 정의라 한다. 우리는 이 예들을 통해 개념의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게 된다. 이는 개념이 포괄하는 경계를 명확히 알지 못할 때 적합한 방법이기도 하다.

셋째, 함축적 정의는 그 개념이 포괄하고 있는 의미를 원초적 언어들을 사용하여 다른 연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것을 말한다. 즉, 개념의 속성(properties 혹은 attributes)들을 명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 정의를 할 때 이 정의를 의미한다. 뒤에서 필자가 마음공부 개념 정의를 시도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함축적 정의의 한 시도이다.

III. 원불교 ‘마음공부’의 개념 정의

위에서 설명한 개념 정의의 기본 요소들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 원불교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마음공부” 개념 정의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원기 89년도(2004년) 원불교 마음공부 세미나에서 마음공부 개념 연구를 발표한 최희공, 권도갑, 김성훈 모두 마음공부 정의를 “마음”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음’을 먼저 정의해보고, 그리고 나서 마음공부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경계’라는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바탕하여 원불교 ‘마음공부’를 정의해보고, 그러한 정의의 한계들이 논의될 것이다.

1. “마음”의 정의: 마음과 성품, 그리고 정신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한 정의가 매우 혼란스럽다.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혼란을 일으키는 주요 이유는 원불교의 기본 경전인 정전과 대중경에서 마음을 (i) 성품과 정신을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ii) 성품이나 정신과 구별되는 개별적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상호 구별되는 개념으로 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먼저 포괄적 개념으로서 마음을 살펴보자. 정전 일원상 수행 장에서 일원상 수행은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a) 그러면, ‘마음’이 원래 그 자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b) 마음 가운데 그러한(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경지가 있다는 것인가? 전자라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전자라면 수행이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행 또는 마음공부는 마음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수행이나 마음공부는 그러한 마음을 가꾸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 또는 마음공부의 대상으로서 마음은 그 자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후자이다. 그러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품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을 성품이라 부른다면, 성품은 ‘마음의 한 경지 또는 부분’이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여 선악이 없는 마음의 경지를 성품이라 하고,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는 곳을 마음이라 한다(대중경, 수행품 30). 마음이 정(靜)하여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경지를 성품이라 하고, 마음이 동(動)하여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한 경지를 일러 마음이라 한다(대중경, 성리품 2). 그러므로, 마음은 성품까지도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또 정전 교의품 삼학 정신수양 장에서 정신을 ‘마음이 두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⁷⁾’라 하였다. 여기서 정신도 마음의 일부이다. 마음 가운데 그러한(두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있는데 이를 이룸하여 ‘정신’이라 부른 것이다. 그리고 정신 수양은 마음의 그러한 경지(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의 경지로서 정신)를 닦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마음은 성품과 정신을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인 것이다. 성품과 정신, 마음은 모두 동일한 사물이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의 경지를 일러 성품 또는 정신이라 한다면, 성품과 정신은 마음의 한 부분이요, 마음은 성품과 정신을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성품과 정신, 마음은 동일체이면서도 분석적으로 서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7) 정신수양 장에서 정신을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 규정하고 있는데, 대중경과 정산종사 법어의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이는 정신이라기 보다는 성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는 정신이 아니라 성품이라 판단된다. 이 문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있다. 즉, 동일한 사물의 상이한 상태에 대해 성품, 정신, 마음이라 개념화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이름들을 붙인 것이다. 먼저, 성품을 살펴보자. 성품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해서 선악이 없고(대종경, 수행품 30; 대종경 성리품 2), 분별과 주착도 없으며(대종경, 수행품 59), 온전하고 밝은 마음 상태(대종경, 수행품 13)를 말한다. 성품은 유무초월하고 구공구족해서 사랑으로 알아낼 수 없고 관조로서만 깨쳐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대종경, 성리품 31). 성품은 언어명상도 없고, 생사거래도 없고, 부처와 증생도 없고, 허무와 적멸도 없으며, 유무도 없는, 즉 분별이 없는 본연 청정하고 원만구족한 ‘자리’이다(대종경, 천도품 5). 마음의 일부이긴 하지만 분별성과 주착심(마음 작용)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이다.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의식, 또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놓음으로써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경지이다. 그렇다면, 마음과 성품은 분별성과 주착심에 의해 구분된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런 경지를 일러서 성품이라 하였고, 분별성과 주착심에 의해 의식 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을 일러서 마음이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성품은 마음의 본래 “자리” 또는 “경지”로서 정(靜)해 있는 ‘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마음은 분별성과 주착심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행동주체’(작용)이다. 내·외 경계에 따라 지각, 인식, 판단 등을 복합적으로 일으키는 활동의 주체인 것이다.⁸⁾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인가? 대종경에 나타난 마음의 모습들을 살펴보자. 마음은 오욕과 애착이 일어나기도 하고(대종경, 서품 14; 교의품 5), 탐진ちに 쉽게 끌리기도 하며(대종경, 서품 17), 사심이 일어나기도 쉬운 곳(대종경, 교의품 5)이다. ‘사욕의 마군을 따라 어둡고 탁해지며 복잡하고 요란해져서 평안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마음이다(대종경, 수행품 58). 욕심의 구름에 덮힐 수 있고(대종경, 천도품 24), 주색에 동하기도 하는 것이 마음(대종경, 불지품 7)이다. 사상(四相)이 일어나는 곳도 마음(대종경, 변의품 19)이다.

그러면서도 섭섭함과 동시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마음(대종경, 인도품 12)이며, 초조해 하기도 하지만, 분수에 편안해질 수 있는 것도 마음이다(대종경, 인도품 28). 희로애락에 끌리고 애착 탐착에 사로잡히는 것도 마음이지만(대종경, 불지품 8), 대자대비심을 낼 수 있는 곳도 (대종경, 불지품 2) 우리의 마음이다. 심신의 자유를 잃게도 하지만, 심신의 자유를 얻게 할 수 있는 것도 마음(대종경, 불지품 16)이다. 애욕경계에 집착하게 만들어 인과 윤회의 사슬을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것도 마음이요 해탈과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곳도 마음(대종경, 천도품 3)이다. 어리석어질 수도 있지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도 마음(대종경, 요훈품 6)이며, 재주와 덕망이 함께 하는 곳이 마음(대종경, 요훈품 7)이다. 이처럼 마음은 가꿈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는 사물이며 공간이다.

마음은 잘못 사용하면 재앙의 원천이 되면서, 동시에 잘 사용하면 개인적으로는

8) 마음공부가 공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성품이 아니라 마음이다. ‘바탕’으로서의 마음, 즉 성품은 공부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끊어진 그런 경지로서 성품을 마음공부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마음공부는 분별성과 주착심에 의해 왕성하게 일어나는 의식 작용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량한 행복의 원천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과 지식, 권리가 많으면 도리어 최악을 짓게 하는 근본(대종경, 교의품 29; 교의품 30; 요훈품 4)이 되지만, 마음공부를 하여 마음을 잘 사용하게 되면 명예와 재보, 일체 학식을 모두 ‘참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정산종사법어, 근실편 4).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근본되는 것은 마음공부로 이는 모든 공부를 총섭하고, 모든 공부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정산종사법어, 무본편 6; 무본편 13). 그렇다면, 마음이 없이는 견성을 할 수도 없고, 성불을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므로, 마음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마음공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⁹⁾

요약하면, 성품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본연청정하고 원만구족한 마음의 경지(바탕, 자리, 상태)이다. 반면, 마음은 (i) 애착·탐착이 일어나기도 하고 경계에 동하여 우리를 인과의 사슬에 얽매이게 하면서도, (ii) 동시에 해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능선능약의 물건이다. 분별심과 주착심을 일으켜 사물을 판단하고 해석하여 능선능약의 행동으로 이끄는 주체가 마음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성품은 마음의 ‘바탕(상태)’으로 수동적(static)이고, 정(靜)적인데 반해, 마음은 동태적인(dynamic) 작용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체자(행위자)’이다. 따라서, 마음공부의 주체는 마음이지 성품이 아니다. 성품은 마음공부에서 마음을 비추어보는 대상이지 마음을 적극적으로 다듬고 가꾸어 가는 주체는 아니다. 경계에 반응하는 마음을 읽고 그러한 마음을 판단하며, 회광반조하여 바른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적극적 행위자는 마음이다. 따라서, 마음은 공부하는 주체이다.

그러면, 정신은 무엇인가? 정전과 대종경에 성품과 정신을 구분하여 정의를 내린 곳은 없다.¹⁰⁾ 정산종사법어에서 이를 구분하였지만, 역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¹¹⁾ 정산종사는 성품과 정신은 “대동하나 영령한 감”이 있는 것이 정신이라 하였다. 일단 성품과 정신은 “대동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같은 물건인데 영령한 동적 요소가 있는 것이 정신이요, 바탕이 되는 측면을 성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종경과 정산종사법어에서 성품과 정신 개념의 실제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두 개념은 사용하는 용법들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이다. 대종경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성품의 속성을 보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언어 명상이 둔공한 경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경지”라 하여 ‘두렷하고 텅빈 바탕’으로 그리고 있다. 이에 반해, 정신은 삼학 정신수양 장에서 규정한 것¹²⁾과는 다소 달리

9) 성품은 일원상 진리에 계합해 있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바탕이기 때문에 가변적이지도 않고, 능동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마음공부의 주체도 아니며 대상도 될 수 없는데 반해.

10) 구분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성품과 정신을 비슷하게 교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삼학의 정신수양 장에서 정신을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 정의함으로써, 정신을 성품과 같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논의할 것처럼 실제 용례들을 보면 정신과 성품은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

11)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2장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령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다.”

‘내용(contents)’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그려지고 있다. 대중경과 정산종사법어에 나타난 ‘정신’ 개념의 사용례들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정신’의 개념을 추론해 보자.

먼저, 정신은 행위의 주체자로 그려지고 있다. ‘육신생활을 지배하고’(대중경, 교의품 19), ‘물질을 사용하는’(대중경, 교의품 30) 주체로서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는 ‘주인’(대중경, 교의품 30)으로서 행동하고 ‘수도’(대중경, 실시품 20)를 주도해 나가는 주체로서 정신이 언급되고 있다. 또, ‘정신이 시끄럽다, 또는 빼앗긴다’(대중경, 수행품 2), ‘온 정신을 바느질에’(대중경, 수행품 17), ‘정신이 맑아진다’(대중경, 수행품 39), ‘정신이 열리다’(대중경, 인도품 26), ‘정신이 상쾌’(대중경, 성리품 22), ‘정신을 차려’(대중경, 천도품 5), ‘정신을 모으다’(대중경, 천도품 25)¹³⁾ 등의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정신은 성품과 달리 능동적인 주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¹⁴⁾ 회광반조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인 성품과는 달리 정신은 인간의 행동을 주도해나가는 주체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신은 마음의 한 속성(능동하는 주체)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신에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우리의 마음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理想)을 나타내고 있다. ‘명량한 정신’(대중경, 수행품 14), ‘자유로운 정신’(대중경, 교의품 25), ‘깨끗한 정신’(대중경, 천도품 2), ‘공변된 정신’(대중경, 교단품 36), ‘온전하고 참된 정신’(대중경, 수행품 20), ‘온전한 정신’(대중경, 수행품 25), ‘원래 온전하고 밝은 것’(대중경, 수행품 13), ‘냉정한 정신’(대중경, 수행품 5) 등의 표현들이 그것들이다. 또한 정신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적 요소를 상징하는 이념형(idela type)으로서 그려지고 있다. ‘부처님 십대 제자들의 정신’(대중경, 교단품 42), ‘부처님의 근본정신(대중경, 교의품 9), ‘근본정신’(대중경, 수행품 19), ‘인류의 정신’(대중경, 인도품 10), ‘호주의 정신’(대중경, 인도품 41), ‘창립정신’ 등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충열효체의 정신’(대중경, 실시품 41), ‘전무출신 정신’(대중경, 교단품 7), ‘이소성대의 정신’(대중경, 교단품 30), ‘대자대비의 정신’(대중경, 실시품 7) 등도 성품이나 마음에 붙을 수 없는 집합적 이념들을 내포하고 있다. 마음은 양면(가변)성을 지니고 있고 주체적이며 개인적(personal)인데 반해, 정신은 이처럼 이상화된 추상성을 가지고 있으며 집합적(collective)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신은 회광반조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인 성품과는 달리 인간의 행동을 주도해나가는 주체로 그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음의 한 속성(능동하는 주체)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즉, 정신은 성품이 가지고 있지 못한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정신은 마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념적 요소¹⁵⁾를 가지고 있다.

12) “분별심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13) 성품은 열리거나, 맑아지거나, 상쾌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성품은 모으거나 집중하는 행위자가 아니다. 정신은 집중하오 ‘정신을 온통 어디에 쏟을 수 있지만,’ 성품은 그런 행위자가 아니다.

14) 정신과 달리 성품은 시끄러울 수도 없고, 모을 수도 없으며, 열릴 수 있는 물건도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주목을(정신을 차리는 것과 같이) 하여 의지를 모으는 주체도 아니다. 성품은 회광반조, 또는 견성의 대상일 뿐 그 자체 견성의 능동자는 아니다.

15) ‘정신 문명’(대중경, 교의품 31)이란 표현은 정신의 이념적 요소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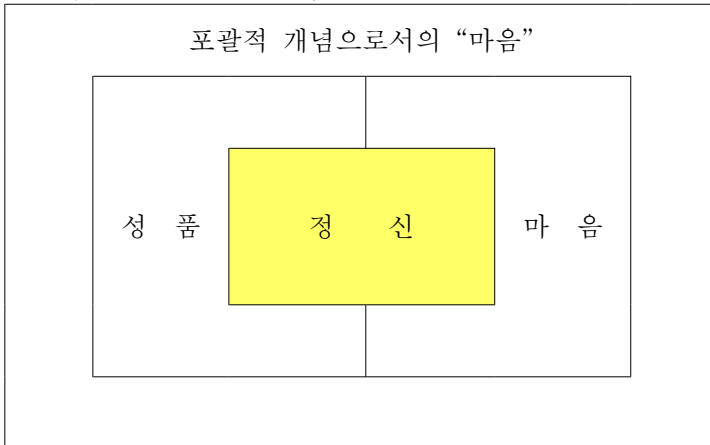
마음이 개인적 측면이라면, 정신은 집합적 측면이다. 마음이 양면적·가변적이라면 (능선능약), 정신은 이상화된 윤리·도덕적 이념이다.¹⁶⁾ 이런 점에서, 정신도 마음공부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마음공부를 할 때 마음이라는 행위자가 (i) 성품을 회광반조하여 텅빈 마음을 회복하면, (ii) 그 성품“적” 바탕에 내용을 채워야 참된 마음 공부라 할 수 있는데 그 때 정신의 요소가 필요한 것이다. 즉, 부처님의 정신, 전무출신의 정신, 근본 정신 등과 같은 이념적 요소를 성품에 비추어 마음 작용에 조율해줄 때 참된 마음공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성품에 회광반조하여 원불교 '정신'¹⁷⁾으로 마음을 채우고 판단하여 행동하면 그것이 참된 마음공부가 아닌가 한다.

위의 논의들을 도시해보면 <그림 1>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포괄적 개념으로서 마음은 성품, 정신, 마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상호 대비되는 개별적인 개념으로서 사용되어, 성품은 마음의 수동적 바탕으로서 그려지고 있는데 반해, 정신은 다소 능동적이지만 집단적·이념적 측면의 주체로 그려지고 있고, 마음은 능선능약한 개인적이고 충동적이며 능동적인 주체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공부에서 이 세가지 요소는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다. (i) 능선능약한 마음이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되려면, (ii) 성품(자성)에 회광반조하여 텅빈 바탕을 회복하고 (iii) 이 바탕 위에 부처님·원불교·전무출신 정신(또는 교리와 같은 이념적 내용)을 반영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원불교의 마음공부에서는 실제로 마음과 성품의 요소만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은 성품과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별로 강조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i) 마음이 자성(성품)에 회광반조하는 과정은 이야기하지만, (ii) 그 다음에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다. 그냥, 회광반조하면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마음을 회복한다고만 말할 뿐 그 이상의 행동 이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마음공부에서 '정신' 요소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6) 정신 대신에 마음을 대체해보면 말이 성립된다. 반면, 정신 대신에 성품을 넣으면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정신은 성품과 한편으로 동일하게 규정(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정전, 교의편, 삼학 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가깝게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능선 능약하고 가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정신은 수동적 이념·이상(예, 전무출신 정신)에 가깝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정신은 마음도 아니다. 마음에서 추상해낸 이상적 모습, 집단적 추상과 과정을 거쳐 추출해낸 집단적 이념이 정신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단순한 수동적 이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하는 주체, 능동적 주체(물질을 사용하고 육신 생활을 지배하는)로서 그려지고 있다.

17) 필자는 여기서 “원불교 정신”의 본질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다. 원불교는 일원상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한다. 그러면, 일원상 진리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일원상 진리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은(恩)”이다. 이 자명한 사실에 대해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무시광첩에 은현 자재하는 일원상 진리’의 본질이요 속성은 ‘은’이고 원불교는 이러한 ‘존재적 은’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한 종교라 볼 수 있다.

< 그림 1 > 성품과 정신, 그리고 마음의 도해



다음은 ‘마음공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음’의 구조에 대해 논의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음은 능선능약하고 능동적인 행위 주체이다. 매우 동태적이고, 가변적이며 양면적 속성을 지닌 주체이다. 그런데, ‘마음공부’에서는 이 마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⁸⁾ 즉, 성품이나 정신¹⁹⁾에 대비되는 공부의 주체자가 마음인데, 이 마음이 둘이라는 것이다. 두 마음이란 (i) 하나는 경계에 반응하는 수동적이고 즉각적인 상태의 마음이고, (ii)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경계에 반응하는) 마음을 ‘지켜보고 이를 평가하는 또 다른 주체로서의 마음’이다. 경계에 무비판적,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즉 마음이 자기 성찰적 과정 없이 그대로 튀어나갈 때 마음공부는 이루어질 수 없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마음을 멈추고 지켜보는 또 다른 나를 인식할 때 마음공부는 출발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유무념) 공부의 원리이기도 하다.

서구 사상에서도 자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프로이드는 자아(ego)를 이드(id)와 수퍼에고(superego)로 분석하였고,²⁰⁾ 사회심리학자인 미드(Mead)는²¹⁾ 자아를 ‘I’와 ‘me’로 구분하였다.²²⁾ 그런데, 서구의 이러한 자아 구분법은 자아의 성찰적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i) 사회적 실재(도덕성, 규범 등)를 내면화한 자아(superego 혹은 me)와 (ii)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자아(id 혹은 I)가 갈등·충돌하면

18) 한순옥,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003 연차학술대회 《한국 유아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화의 토대》, pp. 576-588; 최희공, 앞의 논문.

19) 마음공부에서 실제로 정신적 요소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신을 성품(자성)과 거의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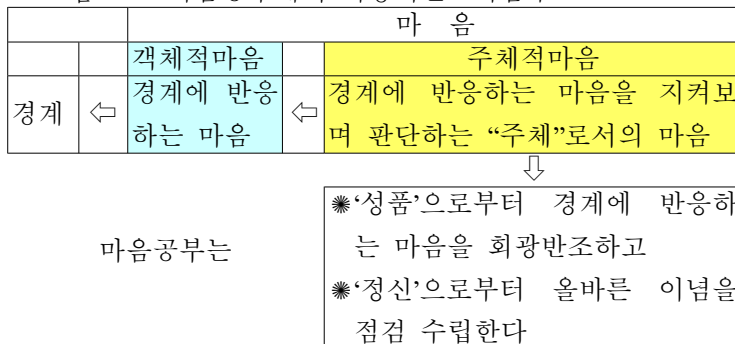
20) 자아는 이드와 수퍼에고의 동적 균형인데, 그것은 사람마다 조화와 균형의 정도가 다르다. 이드적 요소가 강하면 능동(충동)적, 적극적인데 반해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고, 수퍼에고적 요소가 강하면 도덕적이긴 한데 수동적일 가능성이 높다. 충동적이고 능동적 주체로서의 이드와 사회적 도덕성을 수동적으로 내면화한 저장소로서의 수퍼에고가 동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에고인 것이다.

21) 루이스 A. 코저 지음, 신용하·박명규 옮김, 《社會思想史》, 서울: 일지사, 1993.

22) I는 이드처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자아이고, me는 사회적 규범이나 실재를 내면화한 자아이다(도덕성의 실체는 me에서 찾을 수 있다).

서 동적 균형을 이룬 것을 자아라 하여 자아를 분석적 개념으로 구분하였을 뿐, 자아가 자기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상정하지는 않고 있다. 즉, 자아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초자아나 me의 요소를 이드나 I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창조적이고 균형잡힌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가 없다. 이에 반해 마음공부는 바로 이러한 균형잡힌 자아 완성을 추구하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 외부 환경(경계)에 반응하는 자신을 지켜보면서 ‘주체’로서 이를 성찰하고 평가하고 도덕성을 부여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 노력하는 것이 마음공부이다. 그래서, 원불교 마음공부에서 ‘마음’은 주어진 충동으로서의 능동을 넘어서 성품을 길러 나가고(수양을 통해), 정신(이념적 요소)을 가다듬는 주체로서 마음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은 이분화되어 (i) 경계에 즉각적으로 반응(지각, 인식)하는 객체적 마음과 (ii) 이렇게 경계에 반응하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주체적 마음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도시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 그림 2 > 마음공부에서 작용하는 “마음구조”



2. 경계와 마음공부

‘경계’라는 개념의 정의가 마음공부 개념 정의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마음공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 경계라는 개념과 관련하여서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경계’라는 개념을 대중경과 정산종사법어를 통해서 그 용례들을 중심으로 추론해보고, 이에 기초하여 마음공부 논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경계’라는 용어는 대체로 ‘내 정신(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마음)을 빼앗아 가는 사람, 관계, 사건, 사물(대중경, 수행품 2)’들을 말하는 것 같다. 경계는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며, 그르게 만들 수 있는 것(대중경, 교의품 27)이고,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魔)의 근원(대중경, 수행품 19)이기도 하다. 주체인 내 마음이 주체로서 행동하지 못하도록 끌고 다니는 환경적 요소들을 ‘경계’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요소도 ‘경계’로 볼 수 있으나, 대체로 경계는 내 마음에 외재(外在)하며 마음을 유혹하고 굴절시켜 주체로서 작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을 주로 말하고 있다.

경계는 그 종류가 매우 많다는 의미로 “천만 경계” 또는 “모든 경계”²³⁾라는 용어를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다. 사람이 행주좌와 어묵동정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 사건, 사물을 경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경계의 종류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순역경계’(대중경: 수행품 16, 수행품 48, 변의품 39;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8, 경의편 49, 권도편 31, 권도편 41, 공도편 17)인데, ‘공경(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1)’도 한 번 언급되고 있다. 구체적인 경계의 언급으로는 ‘고락의 경계(대중경, 교의품 14),’ ‘욕심의 경계(대중경, 수행품 13),’ ‘오욕 또는 애욕의 경계(대중경, 수행품 16, 천도품 3),’ ‘주색 또는 재색의 경계(대중경, 불지품 7, 교단품 19)’ 등이 있다. 마음을 빼앗는 사람, 사물, 사건 등을 경계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의 본질은 서구문화처럼 이분법적이지는 않다.²⁴⁾ 경계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천만 경계를 응용하는 사람에게는 경계가 낙원으로 이끄는 길이지만, 경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에게 천만 경계는 죄고로 이끌어가는 계기’이다(대중경, 수행품 20). ‘삼학의 대중’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 천만 경계는 공부의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부를 망치는 계기가 된다(대중경, 교의품 22). 경계는 시험과 같아서 잘 치루면 앞길이 양양해지고, 잘 못 치루면 패전하여 영생을 그르칠 수도 있는 것이다(대중경, 수행품 48). 그래서 ‘수도인이 경계를 피하여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다(대중경, 수행품 50)’고 비유하였다. 모든 경계에 경외심을 놓지 아니하면 모든 경계가 나를 살리는 계기가 되고 만유가 나의 이용물이요, 제법(諸法)이 나의 보호기관이 된다(대중경, 인도품 33). 경계를 당하면 오히려 신심과 공부심이 깊어지기도 한다(대중경, 신성품 12).

공부인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경계를 대하여 습관과 업력에 끌려다니기(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 때문이다. 자신의 심량이 협소하고 공부력이 약해 경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운전하기 못하기 때문이다(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 응기편 61). 그래서 마음공부 실력을 갖추게 되면 우주 만유(경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경계에 끌려 다녀 가패신망하고 영생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공부에서 문제가 되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림의 원천은 무엇인가? 경계의 속성인가, 아니면 마음의 틀(창) 때문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것들은 경계와 마음의 상호작용이다. 외물(外物) 가운데 “어느 속성을 선택적으로 주목”하고 “마음의 창(틀)에 의해 그것들을 평가·왜곡”함으로써 온갖 요란하고 어리석으며 그른 마음작용을 내는 것이다. 즉, 요란함, 어리석음, 그림은 경계의 본질적

23) 대중경: 교의품 5, 교의품 22, 교의품 30, 수행품 20, 수행품 40, 수행품 50, 인도품 21, 인도품 33.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8, 원리편 38, 경의편 59.

24) 서구문화의 가치에서는 악(惡)은 본질적으로 악이고, 한번 악은 영원한 악이기 때문에 일체유심조의 세계관이 성립되지 않는다. 악은 ‘돌려서 살리는’ 대상이 아니라 파괴되어 없어져야 할 대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마음을 빼앗는 경계라면 그것의 본질은 악이고, 그렇다면 경계는 당연히 없애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동양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원불교는 경계를 양면적으로 본다. 그 자체로는 악도 아니요, 선도 아니다.

속성은 아니지만 경계의 어떤 속성들을 마음이 주목하고 인식하여 마음의 틀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왜곡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먼저, 외물(경계)이 없다고 하면 마음 작용은 있을 수 없으며²⁵⁾, 마음 작용이 없다고 한다면 외물은 더 이상 경계가 아니다(대종경, 불지품 7). 경계는 외물에 대한 마음작용의 결과이다. 외물에 대한 인식 과정이다.²⁶⁾ 인식 과정(마음)에 도달한 것만이 마음공부의 대상(경계)이다.

이 경계들에 반응하는 마음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행위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래서 공부인은 이러한 천만 경계에 ‘끌려 다니지 말고(대종경, 수행품 20, 요훈품 20),’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며(대종경, 수행품 2),’ ‘마음 대중을 잡거나 주의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대종경, 교의품 22, 수행품 40, 신성품 4).’ 또한 수도인은 경계에 임하여 때론 마음을 ‘돌리기도 하고(정산종사법어, 경의편 59),’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정산종사법어, 권도편 11, 권도편 20, 무본편 24),’ ‘이겨 나가기도 해야 한다(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3, 공도편 3).’ 때론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나쁜 마음의 싹을 제거하기도 하고(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1),’ ‘착심을 놓기도 해야한다(정산종사법어, 경의편 66, 무본편 41).’ 이처럼 마음이 마음을 빼앗는 외부 환경(경계)에 접하여 행동하는 양식은 매우 다양하다 하겠다. 즉, 경계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때론 이기기도 해야 하고, 제거하기도 해야 하지만, 어떤 마음은 세우기도 하고, 키우기도 해야 하고, 때론 돌리기도 하고 관조하기도 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마음공부 행동 양식들이 유형화된다면 마음공부 프로그램도 그만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3. ‘마음공부’ 개념의 한 개념화(정의) 시도

위의 논의들에 기초하여 필자는 원불교 ‘마음공부’를 이렇게 정의해보고자 한다. (i) 경계에 접하여, (ii) 이 경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객체적 자아)을 (iii) 또 다른 마음(주체적 자아)이 지켜보면서, (iv) 성품에 비추어 (v) 반응하는 마음이 적절한지 대조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정의의 요소들을 분해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는 가치중립적이다. 경계는 마음공부에 자극(stimulus)으로서 다가선다. 경계가 공부인에게 갖는 가치와 의미는 공부인의 공부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5) 불교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며 ‘나무(객관)’가 흔들리는가, ‘마음(주관)’이 흔들리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기본적인 함정이 하나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에는 객관(흔들리는 나무)과 주관(흔들리는 나무를 인식)이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객관의 세계에 속하는가, 아니면 주관의 세계에 속하는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객관이 없다면, 주관적 인식이 없고, 주관적 인식이 없다면, 객관의 세계는 의미가 없다. 흔들리는 나무가 없다면 마음이 그것을 인식할 수 없고, 마음이 없다면 흔들리는 나무를 인식할 수 없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이처럼 주관(마음)과 객관(경계)의 상응이다.

26) 현재 원불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상에서 그렇다는 얘기이다. 현재의 마음공부 프로그램들은 마음공부를 경계와 마음간의 상호관계 수준에 국한하고 있다. 경계를 대하여 반응하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주체적 마음이 회광반조하여 요란함, 어리석음, 그릇이 없는 마음 상태를 회복하는 것에 마음공부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다운 공부인은 모든 경계를 은혜를 드러내고 실천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경계가 최고의 장이 된다.

둘째, 마음공부는 경계와 마음의 상호작용이다. 경계 없는 마음공부는 원자재가 투입되지 않은 공장 가동과 같다. 경계를 당하여 마음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마음작용 과정이 마음공부이다.

셋째, 마음은 수동적 마음(경계에 반응하는 객체적 자아)과 능동적 마음(경계에 반응하는 마음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주체적 자아)으로 이분화된다. 경계에 반응하는 객체적 자아만 있을 때 마음공부는 성립할 수가 없다.²⁷⁾ 경계에 반응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주체적 자아가 작용할 때 마음공부가 시작된다.

넷째, 마음공부는 경계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마음을 성품에 반조하여 판단하는 과정이다. 분별심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에 비추어 현재 경계에 반응하여 일어난 마음을 대조하는 것이다. 애욕과 탐착에 끌려서 마음을 내고 있는지, 습관력이나 업력·상(相)·무명에 가리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조하는 과정이다.

다섯째, 그런데 이러한 마음공부의 요소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간혹 소홀히 되는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정신’ 요소이다. ‘정신’을 성품과 같은 의미로 규정함으로써 마음공부를 경계-마음-성품의 요소로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 마음공부를 ‘경계와 마음·성품간 상호작용’으로만 국한시키다 보니, 집합적 이념이 빠져 있다. 마음작용을 살펴서 그 작용을 관찰하여 어찌자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경계에 습관과 업력에 의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객체적 자아)을 일단 멈추게 하고 정신(원불교 정신, 전무출신 정신과 같은 집합적 이념·가치)을 회복·실천할 때 참다운 마음공부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 즉, 사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마음공부에서 도덕성 회복과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 경계에 반응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고, (ii) 주체적 자아가 (iii) 성품에 비추어(자문과정) (iv) 마음의 평정심(요란함, 어리석음, 그림이 없는 마음)을 회복한 후에, (v) 그 마음에 어떤 정신적 요소로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필자는 원불교 정신의 핵심이 “은(恩)”이기 때문에 마음을 멈추고 평정심을 찾은 다음에는 경계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마음공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V. 결론 및 논의

이 논문의 목적은 원불교 마음공부의 개념정의에 대한 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개념정의’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를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그리고 ‘마음공부’에 대

27) 오늘날 서구 문명적 패러다임은 이러한 즉물적 정신풍토(사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성찰적 정신과정을 생략해버리는 문화풍토)를 조장하고 있다. 상황을 내부의 정신 과정에 의해 성찰하는 것보다 느낀 것을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멋있다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느낌이 옳고 바람직하며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한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마음공부 개념의 핵심적 요소인 ‘마음’과 ‘경계’를 주로 대중경과 정산종사법어를 통해서 분석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 위에서 필자가 잠정적으로 끌어낸 마음공부 정의는 다음과 같다: (i) 경계에 접하여, (ii) 이 경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객체적 자아)을 (iii) 또 다른 마음(주체적 자아)이 지켜보면서, (iv) 즉각적인 반응을 일단 멈추고(경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v) 성품(자성)에 비추어 (vi) 반응하는 마음이 적절한지 대조해, (vii) 경계를 원불교적 가르침에 맞게 활용하는 노력을 말한다. 이 과정은 경계-마음-성품-정신(理)의 상호작용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원불교에서 현재 크게 두 개의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경계에 대한 해석적 차이를 둘러싸고 다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유용한 논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경계에 끌리는 마음의 속성이 경계 맞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틀 때문인지 하는 문제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경계 맞이든, 아니면 인식하는 마음 틀 때문이든 간에 마음공부의 본질은 ‘경계에 반응하는 마음을 성품에 대조하여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는 두 프로그램이 완전히 일치한다. 출발점과 목적이 같고, 그리고 이상이 같다면 논리상의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자기 방법론의 우월성 논쟁에 휩싸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마음공부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다양하게 개발될 여지가 있고, 또 그리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마음공부 프로그램들이 장려되고 수용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시도한 마음공부 정의는 ‘마음공부’라는 개념의 함축적 의미를 풀어쓴 정의(connotative definition)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상호 의사소통에의 도움, 유용성, 구체성, 그리고 연구 목적에의 적합성을 들 수 있다. 본 마음공부 개념 정의는 (i) 원초적 언어들로 주로 정의되었고, (ii) 현재의 마음공부 프로그램들에 적합하고, 또 새로운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지적한 점에서 어느 정도 유용성(학문적·실용적)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성품과 정신, 마음, 경계 등의 핵심 구성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경험적 지표들과 쉽게 연결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성의 기준에도 접근하였다고 본다. 연구목적에의 적합성은 본 연구가 개념 정의 자체를 논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 시도는 바람직한 개념 정의의 기준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고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 분야의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필자의 이러한 마음공부 개념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필자의 마음공부 개념 정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하고 폭넓은 마음공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려면 현재의 프로그램을 전제로 하여 추상해내는 과정 못지 않게 동양의 성찰적 문화의 심성론 등으로부터 마음공부 개념을 연역해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식견도 짧고, 현재 논의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를 배제하

였다.

둘째, 연관되는 문제이지만 마음공부를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에 지나치게 한정
을 두고 있다. 마음 작용에 지정의(知情意) 요소가 있다면 여기서는 지나치게 ‘의
(意)’의 요소에만 치중한 감이 없지 않다. 마음공부가 판단하고 행위하는 것만인가
반문해 본다면, 이는 마음공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한정한 것이라 본다. 보다 폭넓
고 균형잡힌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문제(知)부터 심미적 요소까지도 겸비한 모습
(情)으로 마음공부가 자리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폭 좁고 깊이가 얇
은 세계관(또는 지식)에 근거하거나 정서가 메마른 마음공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의 마음공부 개념 정의는 과도하게 의지적 요소에 치중하고 있
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셋째, 마음공부가 원불교의 신앙 및 수행 행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신앙과 수행을 총섭·포괄하는 통일적 방법론으로 이해해
야 할 것인가, 아니면 수행 방법론의 일종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문제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아니하였다. 그럼으로써 마음공부 개념의 외연을 열어둔 상태로 어설픈
맺음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마음공부 프로그램 및
개념 연구에 있어 기존 연구들의 평가 및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본 연구의 시도는 마음공부 개념 정의의 완성이 아니라 논
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이 분야의 연구에 있어 논
쟁의 시작이 되길 기원한다.

참고문헌

- 권도갑(2004), 「원불교 마음공부 개념을 중심으로 한 자성을 세우는 마음공부」, 원기89년도 원불교 마음공부세미나: 《마음공부의 정체성(개념) 연구》에서 발표한 논문, 원불교 교화연구소.
- 김도공(2000), 「마음공부 방법론에 대한 모색: 교단내 마음공부의 현상과 원리 비판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 24집: 365-389.
- 김성훈(2004), 「원불교 마음공부 개념에 대한 연구」, 원기89년도 원불교 마음공부세미나: 《마음공부의 정체성(개념) 연구》에서 발표한 논문, 원불교 교화연구소.
- 박선태(편), 《마음공부 이론 및 실제》, 미출판 인쇄물.
- 소태산사상연구원(編, 2000), 《마음공부 잘 하여 새 세상 주인되라》上, 전남: 영산원불교대학교 출판국.
- 소태산사상연구원(編, 2000), 《마음공부 잘 하여 새 세상 주인되라》下, 전남: 영산원불교대학교 출판국.
- 원불교교화부(1995), 《원불교전서》.
- 유명원(2001), 「단계별 마음공부 방법론에 대한 고찰: 범위등급 6단계 중심으로」, 《원불교학》 7: 241-274.
- 장하열(2000), 「원불교의 도덕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 마음공부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 24집: 339-363.
- 최희공(2004), 「원불교 마음공부의 정론」, 원기89년도 원불교 마음공부세미나: 《마음공부의 정체성(개념) 연구》에서 발표한 논문, 원불교 교화연구소.
- 한순옥(2003),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003 연차 학술대회: 《한국유아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회의 토대》: 576-588.
- Cohen, Bernard P.(1989), *Developing Sociological Knowledge: Theory and Method*, Second Edition, Chicago: Nelson-Hall.

요약문

본 연구는 원불교 ‘마음공부’ 개념의 이론적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개념화(conceptualization)’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정의의 기준들에 기초하여 ‘마음공부’ 개념을 논의하였다.

‘마음공부’를 정의하기 위해 이 개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요소, 즉 마음과 경계 개념을 분석하였다. 대중경과 정산종사법어에서 마음과 경계의 용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함축된 의미를 추출하려 시도하였다. 이렇게 재구성된 의미에 기초하여 마음공부를 정의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추출한 마음공부 개념은 다음과 같은 함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i) 경계에 접하여, (ii) 이 경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객체적 자아)을 (iii) 또 다른 마음(주체적 자아)이 지켜보면서, (iv) 즉각적인 반응을 일단 멈추고(경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성품(자성)에 비추어 (v) 경계에 반응하는 마음이 적절한지 대조해, (vi) 경계를 원불교적 가르침(정신)에 맞게 활용하는 노력을 말한다. 그래서 마음공부는 경계-마음-성품-정신(理)의 상호작용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의는 향후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의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이 정의의 한계도 논의되었다.

주제어: 종교, 원불교, 마음공부, 경계, 마음, 개념정의

원불교 마음공부 방법론

김인소 교무
원광대 도덕교육원

- I. 들어가는 말
- II. 원불교의 마음공부 방법론
 - 1. 禪 체험
 - 2. 경계(境界)찾기
 - 3. 은혜발견
 - 4. 유무념
 - 5. 마음나누기
- IV.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교단적으로 원기 89년에 수위단 사무처, 교화부와 원불교사상연구원의 주최로 원불교의 마음공부 정체성과 마음공부의 개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마음공부 방법론에 관한 필요성은 교단 내·외부 환경의 변화이다. 교화업무 수행상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방안이 필요한 이 때, 마음공부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체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광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덕성훈련에 적용했던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며 미비한 점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그동안 제공해 온 방법에 대해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원불교 마음공부의 방법론

방법론은 방법이나, 절차, 산출물, 기법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체계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원불교의 마음공부를 남녀노소 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 하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음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대산종사는 “이 일상 수행의 요법만이 가정, 국가, 세계를 잘 살게 하는 법이다. 1~4조는 대중화력, 5조는 대감화력, 6~ 9조는 대균등력이 나오니 우리들 자신부터

일상수행의 요법을 실천하여 도덕의 상품을 개발하자. 그리하여 이 세계는 하나의 세계가 건설 되도록 출발하자”고 하였다.

원불교의 마음공부는 남녀노소 선악귀천 누구에게나 실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교단의 특화사업으로 마음공부와 관련하여 유아, 청소년, 일반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이미 나와진 프로그램에서 실기 자료가 풍성하다.

원불교의 개교표어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이며, 교리표어는 ‘불법시생활 · 생활시불법’ ‘무시선 · 무처선’ ‘처처불상 · 사사불공’ 동정일여 · 영육쌍전 · 이사병행’이다.

따라서 원불교의 마음공부 정체성은 생활 속에서 동정 간에 하는 마음공부이다. 산업사회 인간관계는 승패관계(관료조직 = 수직구조)이나, 지식사회는 승승관계(서로 이기는 관계)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할은 다양하기 때문이다.(처처불상, 지자본위) 사람마다 잘하는 것을 더 드러내는 수평조직(신경영조직)의 운영을 하는데 마음공부는 필수이다.(사사불공)

1. 禪 체험

선의 원리를 실제 상황에서 선을 해 보도록 한 후, 체험담을 기재하도록 한다.

『정진』 ‘단전주의 필요’에 보면,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안정을 쉽게 얻는다”하였다. 선의 기본은 좌선이다. 좌선의 개념을 학습한 후에 행, 주, 좌, 와, 어, 묵, 동정간에 응용을 해보게 한다.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眞性を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火氣를 내리게 하고 水氣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쉬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다.”²⁸⁾

2. 경계찾기

가. 순간마다 공부찬스 경계마다 공부거리

요란한 순간, 어리석어지는 순간, 그름으로 나가려는 순간순간 마음공부 할 찬스요, 이기심으로 치닫는 경계마다 공익심으로 돌려야 할 공부거리다.

心地는 원래 요란함 · 어리석음 · 그름이 없건마는(大= 진공)

28) 『원불교전서』, 「정진」, 좌선법.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小= 묘유)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림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정, 혜, 계를 세우자.
(有無= 인과)

“대(大)라 함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小)라 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有無)라 함은 천지의 춘·하·추·동 사시순환과 風·雲·雨·露·霜·雪 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다.”²⁹⁾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자성의 원리인 대소유무를 실생활 속에서 직접 해결하여 가도록 밝혀준 긴요한 법이 바로 일상 수행의 요법 1, 2, 3조이다.

『정전』 ‘일원상의 신앙’장에서 무엇을 믿는가? 할 때에 “대소유무에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 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는 것“이 라고 하였으니, 경계를 따라 요란함, 어리석음, 그림이 나타나는 내 모습도 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무시선법’에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念頭に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 것”³⁰⁾이라고 하였다.

경계를 대하여 그 자리에서 내 마음 작용을 통하여 大小 有無의 이치를 알자는 것이다. 세상은 일과 이치로 이루어졌고 우리의 삶이 곧 대소 유무의 이치로 이루어져 있음을 그 경계에서 발견하여 그 대소 유무의 이치가 내 공부의 정도만큼 밝아지는 것을 對照하게 하려는 데 뜻이 있다.

나. 산 경전

소태산은 많고 번거한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잘 읽도록 하였다. 경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경전은 일과 이치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니, 일에는 시비 이해를 분석하고 이치에는 대소유무를 밝히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밟도록 인도하는 것이라, 유교·불교의 모든 경전과 다른 교회의 모든 글들을 통하여 본다 하여도 다 여기에 벗어남이 없으리라.

② 그러나, 일과 이치가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 그것이니,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에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에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에 죽고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에 나는 것이므로 일과 이치는 인생이 여의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며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다.³¹⁾

우리는 이 경전 가운데에 시비선악의 많은 일들을 잘 보아서 옳고 이로운 일을 취하여 행하고 그르고 해 될 일은 놓으며, 또는 대소 유무의 모든 이치를 잘 보아서

29) 『원불교전서』, 「정전」, 사리연구의 요지.

30) 『원불교전서』, 「정전」, 무시선법.

31) 『원불교전서』, 「대중경」, 수행품 23장.

그 근본에 깨침이 있어야 할 것³²⁾이라고 한다.

그 근본에 깨침의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대조하여 일기를 기재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그 산 경전을 본 후, 공부인들로 하여금 심신작용처리건과 감각감상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감각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다. 이는 그일 그 일에서, 사람과의 갈등에서 갈등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 갈등을 통해 대소유무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는 공부를 해 가자는 것이다.

다. 通萬法明一心

소태산은 1916(원기원년)년에 대각을 하고, 열람한 경전은 유교의 사서와 『소학』, 불교의 『금강경』 『선요(禪要)』 『불교대전』 『팔상록』, 선가의 『음부경』 『옥추경』 그리고 동학의 『동경대전』 『가사(歌詞)』, 기독교의 『구약』 『신약』 등이었다. 그 후, 변산 봉래정사에서 ‘통만법 명일심’의 교리입안준칙에 바탕을 두고 교법을 제정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通萬法明一心’의 뜻을 해석하면 “우주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이해, 이러한 만사 만리를 보아서 나의 마음을 밝히고 또 밝혔으면 이것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만법하여 명일심하기도 하고 명일심하여 통만법하기도 한다.”³³⁾

원불교의 마음공부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수행을 하는 긴요한 법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끝없는 질문에 대해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인격의 변화를 얻도록 인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마음대조 일기

마음대조 일기는 우리의 원래모습인 본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대조 일기는 스스로 기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하거나 상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평가를 받는다. 마음대조 일기를 기재하는 사람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특정한 한 사건을 주제로 삼아서 그 가운데 일어난 상황과 마음의 흐름을 적어갈 때, 외부적 상황뿐 아니라 내부 마음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일기를 감정해주며 함께 경계를 해결해가며 삶의 현장을 지도할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다.

도학을 배우는 사람이 是非의 감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공부는 요령있는 공부라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과 이치 간에 잘 한다 잘못한다 하는 감정을 내리는 것은 그대들로 하여금 굽은 길을 피하고 바른 길을 밟게 하고자 함³⁴⁾이라 한다. 그러므로 잘 한다 잘못한다 하는 데에 다 같이 감사하는 동시에 공부의 참된 요령을 얻어

32) 같은 글.

33) 박정훈편저, 『한울안 한 이치에』, 원불교출판사, 1982, 61쪽.

34) 『원불교전서』, 「대중경」, 수행품 49장.

나가기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경계 따라 내세우는 자기중심적 독단 이기주의 편견 그리고 과거에 형성된 선입견과 고정관념들이 사실을 어떻게 왜곡되게 인식하고 판단하게 하는지 살피게 한다. 경계로서 내 앞에 다가선 상황의 결과만을 보지 말고 이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의 사실성과 당위성을 헤아리게 한다. 상대의 입장과 내 입장을 함께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공정한 마음을 유도한다. 어떤 생각에 잡혔는지 어떤 아집에 주착해 있는지 지적해준다.

소태산은 제자들에게 실제 상황에서 동정간에 삼대력을 얻어가도록 지도하였다. 이에 대해 문답 감정을 실제 해 본 예를 들어본다.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事物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에 매양 返照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³⁵⁾

또한 대중사 예회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법사나 강사가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요령을 잡지 못하고 범연히 듣는다면 그 말이 다 실지 효과를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무슨 말을 들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자연 반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³⁶⁾

이와 같이 일과 이치 간에 그 공부 길을 상세히 지도하여 주었다. 소태산은 수행, 신앙이란 표현보다도 공부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자주 사용한 점은 원불교 마음공부를 브랜드화 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본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겠는가?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고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방법을 지도하는 것이다.

일기기재를 하는 사람은 변화가 된다. 정기, 상시훈련법대로 하다보면 처음에는 의무감이지만 스스로 공부가 되어진다.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다.

일기법에는 정기일기법과 상시일기법이 있다. 그 중 정기일기는 當日내 즉, 일이 생긴 바로 그 날의 작업한 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건과 감

35) 『원불교전서』, 「대중경」, 수행품 24장.

36) 『원불교전서』, 「대중경」, 수행품 25장.

각·감상을 사실 그대로 기재하는 일기이다. 꾸미거나 잘 보이려 말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기재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대소 유무와 시비 이해로 이루어진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재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기를 기재하는 것은 잘 잘못을 밝히고 옳고 그름을 밝히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나의 마음을 보고 삶 그대로가 진리임을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하여 은혜로운 생활을 하자는 마음공부를 위한 일기인 것이다.

3. 은혜발견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가장 가까운 자신의 주위에서부터 찾아보게 한다. 그래서 이를 ‘은혜발견’이라는 주제로 주어진다.

『정전』 ‘사은’장에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으리요”와 ‘지은보은’장에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체받아 보은 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래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다.”

당연시하던 일상의 삶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일상성에 빠지기 쉬운 삶을 실존적 삶으로의 전환이 되어진다.

4. 유무념(有無念)

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정해서 스스로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해서 유무념을 공부해보게 한다. 그리고 실제 해보니 어떠한 결과가 되었는지 그 감상(느낀점)을 적어보도록 한다.

생활 속에서의 스스로 작은 실천이 크게 보면 주위를 정화시키는 결과를 얻고 있음을 본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공익심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기쁨과 세상을 밝게 비추는 중심적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

“유념·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변수를 조사 기재 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변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되고 못 된 것으로 변수를 계산하는 것”³⁷⁾이라고 한다.

37) 『원불교전서』, 「정전」, 일기법.

5. 마음나누기

삶에 있어서의 작은 깨침과 실천은 스스로에게 이미 내재한 지혜와 능력을 계발하게 되는 동시에 그 법열의 기쁨은 주위에 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 7-8조의 실천이라 하겠다.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날 배운 것을 다음 주까지 자신의 생활에서 응용해보게 한다. 해 본 결과물을 (과제) 여러 학생들과 공유하도록 발표를 시킨 후, 문답 감정을 학생들과 함께 주고받으며 의식을 공유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 자신감으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친구들에게 잘 가르쳐보는 계기를 갖게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마음공부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소중한 인연들에게 자신이 배워 실천 해 본 내용이기엔 서툴지만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가르쳐주는 입장일 때, 주의할 점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전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인가를 주의 깊게 살핀다. 그 마음이 진정으로 전달되면 상대방도 잘 배우게 되는 결과를 얻는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밝힌 바는 결국 원불교의 마음공부를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배우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첫 번째, '선 체험'은 『정전』 '단전주의 필요'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玉池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 내리면 수화가 잘 조화되어 몸에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향해지며 元氣가 충실해지고 心丹 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한다”고 하였다. 이는 사람의 본래 마음을 체득하여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하는 기본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경계찾기'는 『정전』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밝힌 바,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도록 한다. 이 경계찾기를 학생들에게 지도할 적에 먼저 선 체험을 먼저 시켜보는 것은 자신의 마음(원래마음,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스스로 알게 함이다.

『정전』 '무시선법'에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에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먼저 마땅히 眞空으로 체를 삼고 妙有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

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 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 바 대승선이요 삼학을 병진하는 공부법”³⁸⁾임을 밝혔다.

세 번째, ‘은혜발견’은 선을 체험해보며 진공으로 체를 삼는 공부를 하게 되면 묘하게도 경계 따라 있어지는 그 마음도 공부하면 은혜로 변화되니 ‘은生於害’를 경험하게 된다.

네 번째, ‘유무념’은 이제 무엇이 실상이고 허상인지를 알게 되니, 한 생각을 낼 적에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 된다.

다섯 번째, ‘마음나누기’는 그동안 배운 것을 가장 사랑하는 주위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매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날 배운 것은 다음 주까지 자신의 생활에서 활용케 한다. 실제 해 본 체험을 과제로 제출하게 한 후 발표를 시킨다. 듣고서 느낀 점을 서로 한 마디씩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상호 의식의 공유가 된다. 다시 말해 문답 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산종사는 ‘마음공부 잘하여 새 세상의 주인 되라 ’고 하였으며, 대산종사는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몸부터 가르치라고 하였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듯이 원불교의 마음공부는 원만한 인격을 이루고 일상의 생활을 진리의 뜻과 같이 살아가자는데 그 뜻이 있다.

마음공부 하는 법을 배운 학생들이 술자리에서 주먹다짐할 상황에서 “경계인줄 알고 멈추어 지혜롭게 해결하며, 버스 안에서 두통과 멀미가 날 때 수업시간에 해 본 좌선을 좌석에서 잠시 하다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며 멀미도 어느 정도 가라앉아 신기했다”는 마음일기의 내용이다. 이와 같이 미묘한 마음 작용 하나 하나까지 온통 생활에 응용해보는 용기가 모두에게 빛이 되고 지혜가 됨을 알 수 있다.

38) 『원불교전서』, 『정진』, 무서선법.

< 부록 >

*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마음공부를 실제로 해 보고 일기로 기재한 내용들이다.

1. 생활 속의 禪

버스를 탈 때

경영학부 000

선 체험을 한 주 더 했다. 이번에는 좌선과 누워서 할 수 있는 선을 했다. 전주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는 나는 1시간동안 잠을 자거나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때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선을 한번 해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차도 많이 흔들리고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집중이 잘 안됐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숨을 단전에 놓고 천천히 호흡을 했다. 나는 버스를 탈 때마다 약간의 떨미를 한다. 혹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좀 미식거리는 등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숨을 천천히 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니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마음도 편했다. 저번 주에도 느꼈지만 너무 신기했다. 그냥 앉아서 집중하는 것뿐인데 그걸로 인해 내 몸이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는 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는 사실이다.

2. 경계찾기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건축공학과 000

사랑경계라!!!!
사랑경계란 것을 생각해보면 종종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 중에서 성격 때문에 일어나는 경계가 있다.
나는 그녀에게 많은 전화를 하고, 신경도 많이 쓰는 편이다. 하지만 그녀의 성격은 혼한 말로 털털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나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편이다.
하루는 내가 학교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이다.

그녀는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친구를 만나러 가버렸다. 그런 일이 연거푸 3번 정도 일어나니 짜증이 났다.

“난 뭐 집 지키는 사람인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잔소리하더니만 자기가 더 하네!” 하고 툭툭거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문득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 성격이 털털한 건 알고 있었는데,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서운함을 갖지는 않을텐데 하고 생각이 들었다. 그때 경계임을 알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랬더니 그 즉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녀에 대한 나쁜 생각들이 없어졌다.

그날 밤 그녀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나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쌓인다면 그건 아마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화나고 나쁜 마음이 생긴다면 서로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었던 것까지 이해가 될 꺼라 생각한다.

3. 은혜 발견

은혜 발견

한약학과 000

오늘은 차분히 앉아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잠 잘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자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불이 고마워졌습니다.

또 바람을 막아주는 집이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집을 구해주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이 떠오릅니다.

그 반찬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 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자 또 위(胃)가 고맙습니다.

튼튼한 내 밥통은 모든 음식을 항상 잘 소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빨도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입니다.

혀도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항상 답답한 입 속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친구도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도 많은 것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었습니다.

4. 유무념

일주일간의 유념 · 무념!!!!

건축공학과 000

	토		일		월		화		수		목		총계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담배 조금만 피우기	5	2	5	1	6	3	4	2	4	1	5	0	29	9
소계	7		6		9		6		5		5		38	
꽁초 버리지 않기	7	0	5	1	8	1	6	0	5	0	4	1	35	3
전화 조금만 쓰기	5	2	6	0	5	2	5	1	6	0	5	1	32	6
소계	7		6		7		6		6		6		38	
과식하지 않기	2	1	3	0	2	1	3	0	3	0	3	0	16	2
일찍 잠자기	유		유		유		무		유		유			

유 · 무념을 생각하면서 나에 습관을 다시 뒤돌아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여러 방면에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다보니 나쁜 버릇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었다.
 습관적으로 행하던 나에 행동 하나 하나가
 이제는 나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5. 마음 나누기

언니와 함께 유무념을...

가정교육학과 000

언니와 함께 방을 쓰는 나는 항상 불만이 많았었다. 사소한 일이지만 언니와 나는 성격이
 정반대(깔끔한 성격인 언니와 털털한 나)인 탓에 항상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었다. 생각한
 끝에 유무념이 번뜩 떠올랐고 함께 조목을 만들어서 체크해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내용	나		언니	
	유념	무념	유념	무념
① 공부하고 책상 정리하기	1	5	7	1
② 그 날 입은 옷 걸어서 정리하기	3	3	5	0
③ 아침에 늦게 일어난 사람이 이불정리하기	2	4	7	0
④ 격일로 방청소 하기	2	6	4	2
⑤ 화장품 쓰고 제자리에 놓기	3	4	7	0

언니와 함께 유무념을 체크해 본 결과 나는 거의 무념이 많이 체크 된 것에 비해 언니는 무념은 깨끗한 수준이었고 거의 모든 생활이 유념이었다. 책상정리, 옷정리, 이불정리, 청소하기 등 모든 조목이 나는 무념으로 행동했던 것이다.

평소에 다룰 때는 무조건 큰소리로 대들었지만 유무념 체크로 인해 결과가 눈앞에 보이고 나니 언니에게 아무 할 말이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생각 없이 행동하던 습관을 버리고 모든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고 생각한 후 행동으로 옮겨야겠다고 다짐했으며 지금은 언니와 예전처럼 자주 다투는 일이 없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정전을 통한 마음공부 방법에 대한 연구

백 광 문 교무
영산선학대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마음공부의 의미와 그 범주
- III. 마음공부의 기본구조(교리 대강과 마음공부)
- IV. 마음공부의 태도와 자기 대조표
- V. 마음공부 교본 또는 원본으로서의 정전
- VI. 정전을 통한 마음공부 방법
- VII. 정전을 통한 마음공부의 브랜드화 시도
- VIII.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원불교의 다양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일원의 진리를 근거한 인도상요법의 교법으로 마음공부를 주장하여 원만한 인격 형성과 지상낙원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대중사께서는 어떤 사람이 너의 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라는 한 제자의 질문에 원래 불교는 일체유심조 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이니 그 이치를 배우고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 불멸의 이치와 인과 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리라³⁹⁾ 고 하시었다. 또한 마음 작용하는 법⁴⁰⁾, 용심법⁴¹⁾ 등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작용 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본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다⁴²⁾ 하여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마음공부에 대한 의미 또는 범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여 그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한 점검 내지는 정리가 개인적 차원과 교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원불교 마음공부는 더 한층 빛이 날 것이며, 더 나아가 세상에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리라 확신한다. 이런 점을 전제하면서본 연구는 마음공부의 의미와 범주, 마음공부의 기

39) 「대중경」, 교의품 27장, 원불교 정화사, 1977.

40) 「대중경」, 교의품 29장 참조.

41) 「대중경」, 교의품 30장 참조.

42) 「대중경」, 요훈품 1장.

본 구조, 마음공부의 교본으로서 정전의 중요성과 공부법을 살펴 본 다음 정전을 통한 마음공부 방법에 대한 견해와 정전을 통한 마음공부의 보편화를 위한 시도의 일단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정전을 통해 마음공부를 구체화해 가자는데 그 초점이 있지만 정전을 바탕으로 한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제시는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가능하리라 판단되기에 다음으로 미루려고 한다.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각 교당의 마음공부 유형이나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장.단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II. 마음공부의 의미와 그 범주

마음공부에 대한 의미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⁴³⁾ 본 연구가 정전을 통해 마음공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인 만큼 소태산 대종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의미와 범주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일찍이 소태산 대종사는 이 인의화로부터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 후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게 하나니라⁴⁴⁾” 하여 마음공부가 경계속에서 정혜계를 세우는 공부임을 밝히고 있다. 수행품 9장에서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⁴⁵⁾”라 하여 마음공부가 자성의 원리를 알고 행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선원대중에게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시니 한 선원은 ‘삼대력 공부를 한다 하겠나이다’ 하고, 또 한 선원은 ‘인생의 요도를 배우다 하겠나이다’ 하며, 그 밖에도 여러 사

43) 좌타원 김복환 교무는 마음공부란 마음의 원리(본말)를 알고 마음 닦는 법을 알고 체득하며 마음작용하는 법과 모든 경계를 선용하는 용심법을 체득하고 세생의세를 실현하는 공부로서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 공부며 모든 공부를 총섭하는 공부라고 주장한다(『마음공부 잘 하여 새 세상의 주인 되라』 상, 영산원불교대학교 편, 2002), 또한 원기 89년도 원불교 마음공부 세미나(89.10.15)자료에 의하면 우산 최희공 원무는 마음공부에 대한 의미를 마음 작용하는 공부와 그 기본 능력을 연계 하는 마음 닦는 공부 및 마음의 본말을 아는 공부라 제시하였고, 김성훈 교무는 마음공부 의미를 첫째, 일원상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이룰 때 까지 신앙하고 수행하며 성리를 연마하는 모든 과정이고, 둘째, 마음공부를 도 중심 종교적 차원에서 정의하면 도에 뜻을 세우고 도를 이루어 가려고 정진하는 신앙행위와 수행 적공의 모든 과정이며, 셋째, 유일적인 종교 개념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복종하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아 하나님과 한 몸 한 기운 될 때 까지 기도하는 정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권도갑 교무는 마음공부는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공부이고, 문제를 내면에서 해결하는 공부이며,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이며, 경계를 거울 삼는 공부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한 창민 교무는 마음공부를 경계에 접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객체적 자아)을 또 다른 마음(주체적 자아)이 지켜보면서 성품에 비추어 반응하는 마음이 적절할지 대조하고 원불교 정신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라 설명하기도 한다(월간교화 4월호 참조)

44) 『대중경』, 교의품 27장.

45) 『수행품』, 수행품 9장.

람의 대답이 한결같지 아니한지라, 대중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며⁴⁶⁾” 라 하여 마음공부를 마음 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의미 짓고 있다.

또한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는 것이니,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 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어 한 가지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데 노력하라⁴⁷⁾고 가르침을 주시었다. 이는 바른 마음을 사용하는 조종사가 되어 참 문명을 건설해 가는 것이 마음공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수행품 57장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병을 잘 치료하여 마음의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는 동시에 너른 세상에 길이 제생의 세의 큰일을 성취하는 것이 마음공부임을 밝히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불교의 마음공부의 의미는 일원의 진리에 근거한 자신의 마음의 원리를 알아 그 자리에 안주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관계 속에서 잘 풀어내어 세상을 바르게 만들고 일체생령을 이롭게 하는 이른바 낙원세계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⁴⁸⁾. 따라서 마음공부의 범주도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개인적으로는 공부의 요도로써 원만한 인격을 이루어 가고, 사회적 또는 관계 속에서는 인생의 요도로 상생과 평등의 사회 또는 관계를 이루어 가는데 까지를 그 범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1.마음작용하는 공부(요훈1)
- 2.마음작용 하는 법(교의29)
- 3.마음사용하는법(교의30 용심법)
- 4.마음 바탕을 잘 단련하여 혜택을 갖추어 얻자는 뜻(심전계발: 수행59)
- 5.심전농사에 크게 성공하는 모범적 농부가 되어볼지어다(수행60)
- 6.마음공부 잘 하여 새 세상의 주인되라(한 울안 한이치)
- 7.마음의 운용(인도23)
- 8.무릇 큰 공부는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수행9)
- 9.마음의 본말을 알고, 마음 닦는 법을 알고, 마음 쓰는 법을 잘 아는 것이 제일 근본되는 지혜(무본2)
- 10.마음을 찾아서 잘 닦고 잘 쓰는 법이 가장 크고 원만한 법(웅기12)
- 11.도덕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교의32)
- 12.사람들의 마음이 개선되면 나라와 세계의 정치도 또한 개선(교의39)

46) 『대중경』, 교의품 29장.

47) 『대중경』, 교의품 30장.

48) 원불교 마음공부가 개인의 인격완성이나 행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정전의 개교표어, 교리도, 개교의 동기, 교법의 총설 등 교리전반에 걸쳐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법타원 김이현 교무도 마음공부에는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대조하는 대자적 마음대조공부와 관계 속에서 인과의 원리에 바탕 하여 은혜와 상생을 생산해가는 대타적 마음공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 바 있다.

13.마음병 치료로 너른 세상에 제생의세의 큰 일을 성취(수행56-7)

14.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법이 모든 법의 조종인 동시에 제일 큰 병법(수행58)

Ⅲ. 마음공부의 기본구조(교리 대강과 마음공부)

1.일원의 중지(우주 본래 이치 + 자성 원리)



☞ 공부의 요도(삼학 팔조) → 무시선 무처선 -수행

☞ 인생의 요도(사은 사요) → 처처불상 사사불공-신앙



☞ 사대강령(정각정행. 지자분위. 불법활용. 무아봉공)

◎일상수행의 요법▲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일기법▲ 범위등급▲

Ⅳ. 마음공부의 태도와 자기 대조표

1.마음공부시 지녀할 태도

- 1)마음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 하자(개교이념 실현)
- 2)교법에 대한 확신
- 3)교법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 4)수많은 자가 임상실험 자세
- 5)진리와 마음의 원리에 대조하자

2.마음공부 정도에 대한 자기 대조표

- 1)진급되고 있는가(범위대조)
- 2)매사에 은혜발견이 잘 되는가
- 3)순간순간 은혜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 4)감사생활이 절로 되고 있는가
- 5)부처가 많이 보이는가(사람이 늘 소중한가)
- 6)늘 여여함과 온전함을 유지하는가
- 7)봉공심(남을 위하는 마음)이 증장되어 가는가
- 8)매사 상생의 심법을 사용하는가
- 9)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 10)교법정신이 증진되고 있는가
- 11)나로 인해 주변과 사회 세상이 변하고 있는가

- 12) 일상수행의 요법이 내실있게 실행되는가
- 13) 늘 기쁘고 은혜롭고 행복한가
- 14) 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가
- 15) 원불교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커져만 가는가

V. 마음공부 교본 또는 원본으로서의 정전

1. 경전의 의미와 중요성

- ① 경전은 우리의 지정교서와 참고 경전을 이룸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함이요(정전 수행편 정기훈련법)
- ② 경전이라 하는 것은 과거세상의 성자 철인들이 세도인심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 도리를 밝혀 놓은 것(대종경 수행품 22장)
- ③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일과 이치의 두 가지를 밝혀 놓은 것이니, 일에는 시비이해를 분석하고 이치에는 대소유무를 밝히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밟도록 인도하는 것(대종경 수행품 23장)
- ④ 경전은 우리의 전도를 바로 인도하는 광명의 등불이니(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25장)
- ⑤ 정전은 근원을 밝힌 원경이요 대종경은 그 교리로 만법을 두루 통달케 하여주신 통의 경전이다(정산종사 법어 정의편 1장)
- ⑥ 정전은 근원을 밝힌 원경으로 복혜가 샘솟듯 비 오 듯 제조되는 원료이고, 대종경은 두루 통달한 통경으로 복혜를 물 마시 듯, 숨을 쉬 듯, 활용하게 한 경으로 각종교의 교리와 제도와 교단의 성격, 성현들의 능력과 인격 등을 알 수 있게 한 것(대산종사법문3집 교법1)
- ⑦ 복혜가 깨알 쏟아지듯 나오게 한 요술방망이가 바로 교전이며, 또 사람 만들고 사주팔자 뜯어 고치는 것이 교전이다(대산종사 법문3집 교법2)
- ⑧ 정전은 대종사님의 경륜과 포부가 새겨진 경전으로서 새 시대 새 역사 창조의 원전이요, 성불제중의 가장 빠르고 빠른 지침서로서 제생의세의 계획서이며 온 인류와 일체생령의 복음서인 동시에 영원한 세상의 寶典이다(각산문집2집, 여의173쪽)
- ⑨ 일원주의 사상에는 현실 모든 문제의 정확한 해법이 있고 비법이 있고 비방이 있어서 쓰는 자마다 효험을 볼 것이요 가져가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 무엇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이 값진 보물을 찾아 간직하고 활용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자(원기90년도 신년법문)

2. 마음공부의 길로서 정전공부의 방향

- 1) 대산종사의 교전해의의 주체강령
 - ①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할 것
 - ② 평이 간명하게 밝힐 것

- ③사통오달로 밝힐 것
- ④일원의 진리 즉 불생불멸 인과보응을 믿어 깨치는데 주로 할 것
- ⑤마음공부 하는데 부합시킬 것

2) 법타원 김이현 교무의 정전 공부 방향⁴⁹⁾

- ① 차례를 충분히 숙지한다
- ② 총서편에서 주세불관, 진리관, 교법관, 회상관을 찾는 공부를 한다
- ③ 교의편에서 性理大全토록(일원상과 성리, 사은사요 삼학팔조와 성리를 연마)한다
- ④ 수행편에서 공부와 일이 쌍전. 병행.일여되는 길(복혜를 구하는 길로 안내)을 터득한다
- ⑤ 전체의 윤곽을 터득한 다음
 - 원문을 정성스럽게 자세히 그리고 소중히 외운다
 - 중요한 단어의 뜻 풀이와 공통의미 부분도 연계 이해한다
 - 교법마다 일과 수행과 연결해서 해석한다
 - 교법정신과 시사, 사회인심을 대조해서 생각한다
- ⑥ 정전 전체 교법정신은 그 목적이 개교의 동기 법문에 있기 때문에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모두 통해야 잘 된 공부라 할 수 있다.

3) 각산 신도형 교무의 경전연마의 길

- ① 경전주석의 표준으로
 - *이문석경(以文釋經)
 - *이경석경(以經釋經 : 교서통독)
 - *이행석경(以行釋經 : 실천을 통한 보편화)
 - *이도석경(以道釋經 : 사통오달로 걸림 없이).
- ② 경전주석의 방침으로
 - *대중화 시대화 생활화의 정신에 근거
 - *원문보다 평이하고 간명하게
 - *독단과 편견에 흐르지 않고 두루 원만하게
 - *가급적 새용어를 함부로 만들지 말 것
 - *누구나 믿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③ 경전연마의 방법으로
 - *각자연구 위주의 훈련, 상호의견 교환의 훈련, 지도인의 감정을 받는 훈련으로
- ④ 경전연마의 순서로
 - *단어 숙어를 정리(대중사님의 聖意에 맞게)
 - *전문의 대의를 간명하게 잡아볼 것
 - *經文內의 문제점(이해상, 실천상)을 발견 토론 정리하되 외제에 흐르지 않도록 할 것

49) 영산선학대학교, 『정전공부 세미나』 자료집, 1997, 3쪽.

*성불제중의 대의를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볼 것

*대중사님과 정산종사님의 본의와 역대 중법사님의 정신에 근거하여 결론을 정리함

3.마음공부의 길로서 정전공부의 자세와 순서

1)마음공부의 길로서 정전공부의 마음자세

- ① 대중사님을 피시는 마음이 간절해야 한다
- ② 원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 ③ 정전의 중요성을 자각(또는 확신)하고 나와 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 ④ 정전공부에 대한 목적의식과 표준이 명확해야 한다
- ⑤ 원불교 교리의 특징(교법정신)을 이해해야 한다
- ⑥ 실천을 통해 정전을 자기화해야 한다(실생활에 활용)
- ⑦ 공부인으로서 확고한 서원과 사명감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2) 마음공부의 길로서 정전공부의 순서

① 자주 만나자(읽고, 듣고, 쓰고)

② 원문에 충실하자

*정신이 갈래이면 큰 공부하기 어려우니 그대들은 정전 한 권에만 전 심력을 기울여서 큰 역량을 얻어 보라(선외록 일심적공장 1장)

*정전을 항상 옆두에 두고 모든 학설을 참고하면 교리가 더욱 밝아질 것이요. 반면에 학설만 들으면 머리만 산만하리라(정산종사 법어 권도35장)

③ 전체구조를 이해하자

*교리의 전체적 구조와 순서 및 교법제정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 등을 파악하자는 것

④ 용어를 정리 이해하자(단어, 어휘, 구절 등)

*사전적 의미와 대중사님의 본의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⑤ 대의 및 요지를 정리하자

*각 장에서 대중사님께서 말씀 하시고자 했던 핵심내용과 주요 요점을 구체화 한다

⑥ 일원상 진리에 대조해 보자

*모든 교리해석은 일원상 진리에서 출발하여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연결지워야(법타원)

⑦ 현실과 관련 지워보자(자신의 생활과 사회현실에 적용)

*대중사님께서 항상 실생활에 연결되는 실담(實談)을 하였고 형이상학에 흐르는

고원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며, 공리공론을 크게 경계하시었다(선외록 실시위덕장15)

⑧ 문제점(의심건)을 찾아보자

⑨ 문답. 감정. 해오를 잘하자

⑩ 자기화(내 것으로 만들자) 하자

명필이 되기로 하면 먼저 명필의 필법을 체 받아서 필력을 잘 길러야 하듯이 우리는 대중사님의 심법을 큰 첩줄 삼고 정전의 말씀대로 꾸준히 실행하여 대중사님의 법통을 오롯이 이어 받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정산종사법어 권도23장)

VI. 정전을 통한 마음공부 방법

1. 표어를 통한 마음공부(정신을 개벽하는 공부)

-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정신을 회복(정신차리는)하는 공부)
- 처처불상 사사불공(만물이 부처임을 알아 부처로 모시고 사는 공부)
- 무시선 무처선(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
- 동정일여 영육쌍전(동정간에 한 결같은 마음으로 영과 육을 아우르는 공부)
- 불법시생활 생활시불법(불법으로 생활에 유익을, 생활속에 불법이 깊게 하는 공부)

2. 교리도를 통한 마음공부(성불제중의 지도 활용 공부)

- 심불일원상(우주와 자성의 원리 해결하여 아는 공부)
- 진공묘유의 수행문(공부의 요도로 일원의 체성에 합일하는 공부)
- 인과보응의 신앙문(인생의 요도로 일원의 위력을 얻는 공부)
- 정각정행(바른 깨달음으로 육근의 원만행을 하는 공부)
- 불법활용(불법활용으로 도움 주는 유용한 사람 되는 공부)
- 지은보은(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보은의 생활을 하는 공부)
- 무아봉공(자기의 국한을 벗어나 일체중생을 제도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는 공부
= 시방이 일가이니 무아로써 봉공하자)

3. 개교의 동기를 통한 마음공부(낙원세계 이루는 마음공부)

1)진리적 종교의 신앙

- 일원의 진리를 신앙하는 것(원리3장, 교의4장)
- 전체신앙(개체신앙)
- 사실신앙(미신신앙)
- 진리신앙(형식신앙)
- 자타력 병진 신앙

2)사실적 도덕의 훈련

- 경계를 당해 실지로 진리반조, 자성반조, 교법대조로 진급되고 은혜 입는 공부
- 법의 훈련과 수행훈련으로 삼대력을 키워가는 공부
-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철저히 밟는 공부

4. 교법의 총설을 통한 마음공부(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는 마음공부)

- 1)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살자
- 진리와 성현의 심법, 각자의 본성에 바탕해서 공부
-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하는 공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는 공부

2)사은으로 신앙의 강령을 삼고 살자

-사은의 공물(=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임을 아는 공부

-사은에 대한 보은의 강령(응용무념의 도, 무지력자 보호의 도, 자리이타 도,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실천하는 공부

-상생의 도, 살림의 도, 평화의 도를 실천하는 공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보은의 생활을 하는 공부

-사은에 대한 각 보은 조목 실천하는 공부

3)삼학으로 수행의 강령을 삼고 살자

-동정간 삼대력 키워가는 공부(수행2)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

-매사에 일심과 알음알이에 바탕해서 실행하는 공부

-각자의 참 마음을 찾아서 잘 가지고 다니다가 잘 쓰는 공부

4)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며 살자

-이웃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자

-막히고 걸림이 없는 공부(국집되지 않는 공부)

-유연성, 창의성, 수용(선용) 및 활용 능력을 갖게 하는 공부

-상식이 통하는 공부인이 되는 공부를 하자

5.일원상을 통한 마음공부(근원을 회복하여 자신과 세상 주인 되는 공부)

1)일원상의 진리(우주의 원리와 자성의 원리를 밝히는 공부)

-일원이 우주만유의 본원임을 알게 하는 공부(본원으로 살게 하는 공부)

-일원이 제불제성의 심인임을 알게 하는 공부(성현의 심법으로 살게 하는 공부)

-일원이 일체중생의 본성임을 알게 하는 공부(본성으로 살게 하는 공부)

-일원은 공적영지의 광명을 나뉘어 알게 하는 공부(공적영지의 광명으로 살게 하는 공부)

-일원은 진공묘유의 조화를 나타냄을 알게 하는 공부(진공묘유의 생활을 하게 하는 공부)

2)일원상의 신앙(일원의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는 공부)

-일원이 본원이요 심인이며 본성인 것을 믿게 하는 공부

-일원이 공적영지의 광명과 진공묘유의 조화...

3)일원상의 수행(일원의 진리(=본래마음)를 그대로 실행하는 공부)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각자의 마음이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임을 알게 하고, 양

성하게 하며, 사용하게 하는 공부

4)일원상 서원문(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는 공부)

-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임을 알게 하는 공부(진공을 회복하는 공부)
- 일원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임을 알게 하는 공부(묘유의 용을 나투는 공부)
- 일원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륜의 본원임을 알게 하는 공부(본원답게 사는 공부)
- 일원이 제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임을 알게 하는 공부(본성으로 사는 공부)
- 은생어해(역경에서 은혜가 나오게 하는 공부)-은생어은
- 해생어은(순경에서 해가 나오지 않게 하는 공부)-해생어해
-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5)일원상 법어 : 깨달음과 실행을 확인하는 공부(검증. 대조)

- 이 원상(圓相)의 진리를 각(覺)하면
-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줄을 알게하는 공부(각자가 만물의 주인임을 알게 하는 공부)
-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님을 알게 하는 공부(우주만물이 한 몸임을 알게 하는 공부)
- 제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게 하는 공부(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님을 알게 하는 공부)
- 생.로.병.사의 이치가 춘.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게 하는 공부(생로병사의 이치가 변화임을 알게 하는 공부),
-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陰陽相勝)과 같이 되는 줄을 알게 하는 공부(인과 의 이치가 호리도 틀임 없음을 알게 하는 공부)
-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게 하는 공부(불편불의 하고 과불급 이 없는 원만행을 하게 하는 공부)
- 육근(안이비설신의)을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자는 공부

6)계 송

- 유(有)는 무(無)로 무 는 유 로
- 돌 고 돌 아 지 극(至極) 하 면
- 유 와 무 가 구 공(俱空) 이 나
- 구 공 역 시 구 족(具足) 이 라.

6. 사은사요를 통한 마음공부 :

인생의 요도를 통한 공부(관계속에서 복락을 장만하는 공부)

1)사은을 통한 마음공부(은혜를 발견하고 감사 보은의 생활을 하는 공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하는 공부

*사은에 대한 보은의 강령을 실천하게 하는 공부

*살림과 상생의 도를 실천하는 공부

*천지 보은의 조목 실천(천지에 보은하는 공부)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천만 사리(事理)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아는 공부)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시종이 여일하게 하는 공부)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중도를 잡는 공부)

-천지의 순리 자연한 도(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리는 공부)

-천지의 광대 무량한 도(편착심을 없이 하는 공부)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해탈을 얻는 공부)

-천지의 길흉 없는 도(길흉에 끌리지 아니하는 공부)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무념의 도를 양성하는 공부, 관념과 상을 없이 하는 공부,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하는 공부)

*부모 보은의 조목 실천(부모에 보은하는 공부)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빠짐없이 밝는 공부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리는 공부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하는 공부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하는 공부

*동포 보은의 조목 실천(동포에게 보은하는 공부)

-사농공상의 관계속에서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써 하는 공부

-초목 금수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않는 공부

*법률 보은의 조목 실천(법률에게 보은하는 공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하는 공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실행하는 공부

2)사요을 통한 마음공부(인간불공으로 통한 평등사회 이루는 공부)

*평등사회를 이루는 공부

*자력양성의 강령(자력을 공부삼아 양성하는 공부)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공부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공부

*자력 양성의 조목 실천

- 의뢰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공부
- 남녀차별 없는 교육을 하자
- 남녀 모두 직업에 근심하여 생활에 자유를 얻고, 의무와 책임을 동등하게 이행하자
- 차자도 부모의 생전 사후를 장자의 예로 받들자

- *지자 본위의 강령(차별에 끌리지 아니하고 지자로부터 배우는 공부)
- *지자 본위의 조목 실천
 - 술성(率性)의 도와 인사의 덕행, 모든 정사, 생활, 학문과 기술, 기타 모든 상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아는 공부
- *타자녀 교육의 강령(자타의 국한없는 교육으로 문명을 촉진하고 다같이 낙원생활)
- *타자녀 교육의 조목 실천
 -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교육기관에 조력과 교육을 하자
 - 국가나 사회기관에서 교육을 권장하게 하자
 - 타자녀 교육 자에 대한 표창과 대우를 하자

- *공도자 숭배의 강령(공도자 숭배로 생활평등을 이루는 공부)
- 공도자를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도리로써 숭배하자
- 우리 각자도 그 공도 정신을 체반아서 공도를 위하여 활동하자
- *공도자 숭배의 조목 실천
 -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공도 사업을 하자
 - 공도자를 봉양하고, 상장을 부담하며, 영상과 역사를 보관하여 길이 기념하자

7. 삼학팔조를 통한 마음공부(공부의 요도를 통해 부처이루는 공부)

- 1)삼학을 통한 마음공부(만생령 부활시키는 공부=일체생령 건지는 길=부처되는 공부)
 - *정신수양(본래마음 회복공부로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 즉 수양력 얻는 공부)
 -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얻는 공부
 -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공부
 - *사리 연구(아는 공부로 걸림 없이 아는 지혜의 힘 즉 연구력 얻는 공부)
 - 일(시비이해)과 이치(대소유무)를 연마하고 궁구하는 공부
 - *작업 취사(실행공부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기어이 버리는 취사력 얻는 공부)
 - 육근 작용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공부

- 2)팔조를 통한 마음공부--마음공부를 잘 하게 하는 원동력
 - 만사를 이루는 원동력 신분의성을 추진하는 공부

- 신분의성으로 불신 탐욕 나 우를 제거하는 공부
- 우주본가에 들어가는 삼대력의 열쇠를 조성하는 공부
- 믿음, 용장한 전진심, 알고자 하는 마음, 간단 없는 마음 키우는 공부

8. 사대강령을 통한 마음공부(원불교의 네 가지 큰 목표를 이루는 공부)

- 정각정행(바른 깨달음으로 육근의 원만행을 하는 공부=바르게 알아서 바른 실행을 하자)
- 불법활용(불법활용으로 유용한 사람 되는 공부=불법을 잘 알아서 널리 활용하자)
- 지은보은(은혜를 발견하여 감사보은의 생활을 하는공부=사중은을 발견해서 크게 보답하자)
- 무아봉공(자기의 국한을 벗어나 일체중생을 제도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는 공부 =시방이 일가이니 무아로써 봉공하자)

9. 일상수행의 요법을 통한 마음공부(일상생활에서 성불제중 제생의세 하는 공부)

- 자성의 정을 세우는 공부
- 자성의 혜를 세우는 공부
- 자성의 계를 세우는 공부
-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써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는 공부.
- 원만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공부
-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는 공부
-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는 공부
-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는 공부
-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는 공부

10.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통한 마음공부(법의 훈련과 수행훈련으로 활불 되는 공부)

- 1) 정기훈련(법의훈련으로 삼대력 얻는 공부)
 - 염불 : 천지 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오직 일념으로 만드는 공부
 - 좌선 :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정신을 양성하는 공부
 - 경전 :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는 공부
 - 강연 : 지견을 교환하며 혜두(慧頭)를 단련시키는 공부
 - 회화 : 구속 없이 의견을 교환하며 혜두를 단련시키는 공부
 - 의두 :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는 공부
 - 성리 :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게 하는 공부
 - 정기일기 : 가치있는 시간 보내는 공부,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하는 공부,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는 공부, 대소유무이치가 밝아지게 하는 공부
 - 상시일기 : 유무념 공부, 학습 상황 점검 공부, 계문준수 점검 공부
 - 주의 : 실행하는 마음 살피는 공부

-조행 : 사람다운 행실 가짐의 점검 공부

2)상시훈련(수행훈련으로 삼대력 얻는 공부)

*상시 응용 주의 사항

-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
- 미리 준비 하는 공부
- 경전을 배우고 스승과 문답하는 공부
- 의심을 풀어내는 공부
-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
- 반성하는 공부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

-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하는 공부
-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하는 공부
- 지도인에게 해오(解悟) 얻기를 주의하는 공부
-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하는 공부
- 매 예회 날에는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하는 공부
- 소득 유무를 반조(返照)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하는 공부

11.염불좌선을 통한 마음공부(본래 마음 회복하는 공부)

1)염불은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드는 공부요, 순역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

-염불의 방법 실행(7가지)

2)좌선(식망현진하고 수승화강 하는 공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

-좌선의 방법 실행(9가지)

-좌선의 공덕(10가지)

3)단전주(단전에 마음을 주하여 진여성을 체득하는 공부)

-동정 없는 진여성을 체득하는 길

12. 의두요목을 통한 마음공부(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는 공부)

-공부의 정도 내지는 근기에 따라 20조목을 가지고 연마하는 공부

13. 일기법을 통한 마음공부(산부처로 사는 공부 : 점검, 대조, 결산, 진급공부)

*상시 일기법--당일 점검 공부

-유념 · 무념 공부(유념: 마음챙김-일이 잘됨)

-학습 상황 정도 평가 공부

-계문은 범과 유무를 대조 기재하는 공부

-태조사법 활용

*정기 일기법--당일 복혜를 점검하는 공부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재(가치있게 보낸시간과 허망하게 보낸시간을 대조)

-당일의 수입 · 지출을 기재 공부: 수입장만과 빈곤방지 하고 놀고 먹는 폐풍)

-심신 작용의 처리건을 기재공부 : 시비를 감정하여 죄복의 결산, 시비 이해를 밝혀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함이요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공부 :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

14. 무시선법을 통한 마음공부(동정간에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

-진공(眞空)으로 체를 삼고 묘유(妙有)로 용을 삼는 공부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는 공부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공부

-집심, 관심, 무심, 능심 공부

-육근(六根)이 무사(無事)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공부

15. 참회문을 통한 마음공부(업장을 녹여내고 선도에 들어가는 공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공부,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가는 공부

-성심으로 삼보전에 죄과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하는 공부(사참)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를 제거해 가는 공부(이참)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하는 공부

16. 심고와 기도를 통한 마음공부(원하는 바를 이루고 낙 있는 생활을 하는 공부)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게 하자

-원만한 사은으로써 신앙의 근원을 삼자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를 올리자

-피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죄를 올리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결정될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자

-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심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올리자
- 순경을 당할 때에는 간사하고 망녕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하자

17. 불공하는 법을 통한 마음공부(복과 은혜를 장만하는 공부)

- 사은 당처에 불공을 하는 공부
- 사실적이고 성공하는 불공을 하게 하자
- 일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기한(=끝까지=성공)으로 불공하게 하자

18. 계문을 통한 마음공부-금지조항을 통한 마음공부

- 보통급
- 특신급
- 법마상진급

19. 솔성요론을 통한 마음공부(성품을 활용하는 공부)

- 근기와 공부 정도에 맞게 활용하자

20. 최초법어를 통한 마음공부

1)수신(修身)의 요법(수신하는 공부)

-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 응용할 때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知行)을 같이 할 것이니라.

2)제가(齊家)의 요법(가정 다스리는 공부)

-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대조하여 근검 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 호주는 건문과 학업, 자녀의 교육, 상봉 하송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
- 가권(家眷)이 서고 화목하며, 의견 교환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 내면으로 심리 밝혀 주는 도덕의 사우(師友)가 있으며, 외면으로는 규칙 밝혀 주는 정치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요,
-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3) 강자·약자의 진화(進化)상 요법

- 강자는 자리아타 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공부
-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 강자로 진보하는 공부

4)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 지도 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 지도 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 지도 받는 사람에게 사리(私利)를 취하지 말 것이요,
-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이니라.

21. 고락에 대한 법문을 통한 마음공부(고를 버리고 낙을 얻는 공부)

-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알게 하자
-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행.주.좌.와.어.묵.동.정 간에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 낙을 취하고 고로 들어가지 않는 공부를 하자

22.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을 통한 마음공부(건전하고 평화한 사회 만드는 공부)

-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며,
-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지 말 것이며,
- 지도 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을 것이며,
-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써 교화를 잘 할 것이며,
- 자리(自利)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등의 공익심)로 나아가는 공부를 하자

23. 영육쌍전법을 통한 마음공부(영육쌍전으로 산종교인 되는 공부)

-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임을 알게 하자
- 제불조사 정전(正傳)의 심인인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 연구. 취사의 삼학으로써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삼학으로써 그 진리를 얻어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니라.

24. 법위등급을 통한 마음공부(공부 정도평가와 마음공부 표준)

- *법위등급으로 마음공부의 표준을 삼고 자신의 공부정도를 평가하자

VII. 정전을 통한 마음공부의 브랜드화 시도

- 1.부처모시기(처처불상 사사불공: 자기부처 상대부처 만물부처)
- 2.은혜발견하기(감사생활)
- 3.그 마음 그대로(일원종지-자성불이 : 원본마음)
- 4.잘 받고 잘 짓는 공부(인과: 무한 인생 열어가기)
- 5.은혜의 소종래 발견하기
- 6.일상수행의 요법
- 7.깨어살기(유무념 공부)
- 8.일기법
- 9.훈련법
- 10.무시선법

VIII.나오는 말